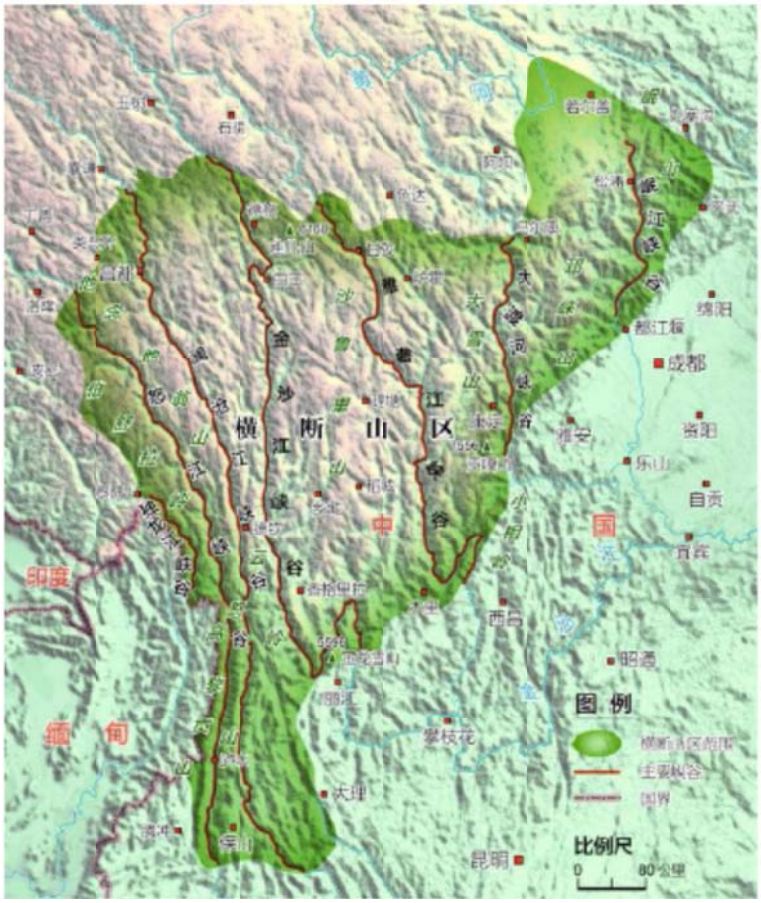
6강 운남, 신화 왕국

이족[彝族]은 저氐・강羌계통 민족에 속한다. 칭하이성青海省과 티베트 지역에서부터 헝돤산맥[横斷山脈] 줄기를 따라 이주해 내려오며 곳곳에 정착하여 여섯 개의 지파로 나뉘었다. 여섯 개의 지파가 각각 다양한 창세서사시를 전하고 있으며, 아름답게 생긴 문자를 갖고 있다. 이족의 사제인 '비모'는 이족 지식의 전수자이다. 비모에 대한 존경은 군장에 대한 존경보다 크다. 오랜 동안 보존되어온 그들의 창세서사시 속에는 수많은 신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으며, 그들의 신화와 의례는 생활의 규범이 되어있기도 하다.

http://earthobservatory.nasa.gov/IOTD/view.php?id=8098
http://jinsanjiang0494.blog.sohu.com/161006078.html



가. 이족-눈[眼]에 관한 신화들과 눈이 독특한 가면의 관계는?

(1) 눈과 관련된 신화들

* 눈[雪]

쓰촨성 양산[凉山] 이족신화

인간은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눈이 변한 것. 천신 언티구츠가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인간을만들지 못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오동나무에 곰팡이가 피고, 거기서 나온 세 줄기 안개가 하늘로 올라가 변해서 세 차례에 걸쳐 붉은 눈이 내림. 그리고 아흐레가 지난 뒤 그 붉은 눈이 피를 가진 설족(雪族) 여섯1), 피를 가지지 않은 설족 여섯으로 변해 인간과 동식물의 조상이 된다.

* 눈[眼]

이족 창세서사시 『메이거』(추슝 지역)('오래된 이야기'), 『차무』(쌍보현)('만물의 기원'), 『아시더셴지』(미러현)('아시 사람들의 노래')등에 보면 세상의 시작에 관한 독특한 신화들이 전해진다.

○ 윈난성 쌍보현[雙柏縣] 창세신화

세상의 시작에 아득한 안개와 이슬만이 있었다. 어두운 밤도 환한 대낮도 없던 시절, 끝없이

펼쳐진 안개와 이슬 속에서 마침내 하늘과 땅이 나타난다.

물에서 나온 여신이 최초의 인간인 독목인(獨目人)을 만든다. 말도 못했고 농사도 지을 줄 몰랐다. 사람은 동물을 먹었고 동물은 사람을 먹었으며, 때론 사람이 사람을 먹기도 했다.

천신은 다른 신들과 의논한 결과 인간의 종류를 바꿔보기로 결정, 여신을 불러다가 독목인의 몸에 있는 때를 벗기라고 했다.

여신은 물을 퍼서 독목인의 때를 열심히 벗겨냈다. 그랬더니 하얀 머리는 검은 머리가 되었고 거친 손은 부드럽게 변했으며 다리의 갈라진 부분도 붙었고 한 개의 눈은 두 개가 되었다. 그러나 그 두 개의 눈은 세로로 된 눈이었다. 두 번째 인간인 직목인(直木人) 이 탄생한 것. 인간은 나무줄기로 서까래를 만들고 나뭇잎으로 지붕을 만들었으며 나무껍질로 벽을 만드는 등, 나날이 발전해감.

세 번째 인간인 횡목인(橫目人) 탄생. 손에 칼을 들고 허리에 도끼를 차고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내고 농사를 짓기도 했다.

○ 윈난성 미러현[彌勒縣] 창세신화(『아시더셴지』)

사람들은 최초의 인간이 갖고 있던 눈이 '개미눈-> 메뚜기 직목-> 귀뚜라미 횡목-> 젓가락 횡목'으로 변한다고 생각했다.

천신 아러와 아미가 노란 흙으로 최초의 남자 아다미를, 하얀 흙으로 여자인 예와를 만들었다. 둘이 혼인하여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고 세상에는 '개미소경 인간'들이 생겨났다. 개미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 일곱 개의 해가 한꺼번에 떠올랐다. 사람들은 모두 말라죽고 동굴 속에 들어가 숨었던 두 남녀만 살아남았다.

두 남녀가 혼인하여 새로운 인간인 '메뚜기 직목인'이 탄생했다. 산에 불이 나서 두 사람만 살아남고 모두 죽어버렸다.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비에 불은 꺼졌고 동굴 속에 숨어있던 부부는 '귀뚜라미 횡목인'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그 시대도 대홍수로 인하여 끝나버렸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작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하늘 문을 두드려 신들에게 지상의 물을 빼게 했다. 신은 남매에게 혼인하라고 했으나 혼인을 거부한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신의 뜻대로 결혼하였고 마침내 세상엔 오늘날의 인간들, 즉 '젓가락 횡목인'의 시대가 열렸다.

○ 초웅 지역에 전해지는 창세서사시(『메이거』)

거즈천신이 눈[雪]을 한 주먹 움켜쥐고 세상에 뿌려 인간을 만들었다.

첫 번째 뿌린 눈이 변해서 된 인간들에겐 다리가 하나. 키도 작아서 혼자 길을 걷지 못했고 두 사람이 서로 목을 받쳐줘야 다닐 수 있었음. 달빛이 비치면 살았지만 햇빛엔 약해 말라서 죽어버렸다.

두 번째 뿌린 눈은 키가 엄청나게 큰 인간들로 변함. 산의 열매를 따먹으며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하늘에 아홉 개의 태양과 아홉 개의 달이 나타나자 말라서 죽고 말았다.

거즈천신은 세 번째 눈을 뿌렸고, 그것이 세로 눈을 가진 사람 즉 직목인(直目人)이 되었다. 직목인은 게으름을 피우며 논에서 잠만 자고 먹기만 했다. 게다가 곡식을 함부로 낭비하기까지 했다. 천신은 착한 남매만 남겨두고 홍수를 내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했다. 천신이 그들 남매에게 혼인하라 했으나 남매는 아주 고집스러웠다. 결국 강가로 간 오빠는 상류에서 목욕하고 누이는 하류에서 그 물을 마시는 것으로 타협, 마침내 누이가 임신을 하여 이상한 조롱박을 낳았고, 오늘날 이족의 시조이자 새로운 인간들인 가로 눈을 가진 사람, 즉 횡목인(橫木人)이 탄생한다.

○ 눈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이족의 신화들

눈의 변화과정은 인간의 진화과정을 의미한다?

눈에 관한 그 독특한 신화들의 기원은 어디일까?

눈에 관련된 신화들과 습속들은 중원지역보다는 서아시아 지역과 관계있음.

네팔 스투파의 보호의 눈, 힌두 신들의 눈, 터키의 눈, 이집트의 눈.

눈과 관련된 신화들은 '서쪽'에 있다.

○ 서남부 지역 출토 유물의 '눈'

쓰촨성 청두[成都] 부근 삼성퇴三星堆유적지의 '눈'

3600년 전 쯤의 것으로 추측되는 청동유물들 중 특별히 눈이 강조된 청동인면상들.

눈이 특별히 강조된 삼성퇴 유적지의 유물들과 이족 신화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을까?

쓰촨성 서남부지역에는 이족이 거주한다.

- 눈, 지혜의 상징.
- 지혜를 갖게 된 인간에 대한 보고서- 눈의 변화

(2) 이족의 여신 아헤시니모와 터키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 그 관계는?

○ 이족의 아헤시니모

금빛 바다에서 태어난 거인여신 아헤시니모 가무잡잡한 피부에 - , 맑은 눈.

- 금빛 바닷물을 마시고 하늘과 땅을 낳았으며 별과 달, 구름과 비를 낳음.
- 소와 말 등의 동물, 풀이나 메밀 같은 식물까지 낳음.
- 열네 개의 눈과 귀, 스물여덟 개의 젖을 가진 천지만물의 어머니.
- 지역적으로 하니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여, 하니족 여신 신화와 섞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아헤시니모/ 하늘과 땅의 어머니

만물의 어머니

인류의 조상이라네

인류의 역사/ 아헤시니모 가장 길고

인류의 나이/ 아헤시니모 가장 많다네

아헤시니모 이야기

엄숙하게 말해야지

들을 때도 진지하게

절대 함부로 하면 안된다네...."

○ 터키 에베소(에페수스)의 아데미

- 터키 에베소의 아데미, 다산과 풍요의 여신.

- 아데미의 가슴에도 24개의 젖이 있음.

- 에베소의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의 네 배나 되는 크기였음.

- 에베소와 바티칸 박물관의 아데미여신상에는 소와 호랑이 등 동물들이 새겨져 있음. 천지만물 뿐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만든 창조의 신이라는 아데미의 신격.

► 여신들의 가슴에 달린 24개의 젖은 '음탕함'이 아니라 '풍요로운 생명력'을 뜻함.

사도 바울이 들어오기 이전, 에베소의 최고신은 아데미.

기독교문명의 도래와 함께 사라진 여신 아데미는 어디로 갔을까?

- 아르테미스와 아헤시니모?

(3) 이족 신화 속의 지혜 예찬과 문자의 신화

이족의 사제 '비모'에 관한 여러 가지 신화들

비모는 왜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걸까?

비모는 어떤 존재?

문자의 신화와 비모

이족 문자에 관한 몇 가지 신화들

지식과 지혜를 예찬하는 전통은 서쪽 위구르지역에도 있음.

위수프 하스 하지프 -지혜의 서

나. 하니족-높은 산에 다랑논을 일군 사람들의 신화

하니족 역시 저강 계통으로 분류된다 이족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와 아이라오산 . [哀牢山] 일대에 거주한다. 해발 2천 미터 고지대 산지에 다랑논을 개간한 사람들. 약소민족. 그들의 신화는?

(1) 여신들의 세상

물에서 탄생한 금빛 물고기여신이 커다란 지느러미를 펼치자 그 속에서 안개가 나오고 그것이 하늘과 땅이 된다.

"언제인지 모르는 아득한 옛날,

금빛 물고기가 신들을 낳았네

금빛 물고기 어머니가 거대한 금빛 비늘을 펼치자

황금빛 비늘 갈피에서 수없이 많은 황금빛 광선이 쏟아졌네

비늘을 한번 흔들자 목에서 두 명의 대신(大神)이 나왔네

태양신 웨뤄와 달의 신 웨바이,

비늘을 또 흔들자 등지느러미에서 두 명의 대신이 나왔지

천신 어마와 땅의 신 미마,

비늘을 다시 흔드니 가느다란 허리에서 두 명의 대신이 나왔네

인신(人神)이 그들, 남자는 옌뎨, 여자는 뎨마,

꼬리를 흔들자 대신 한명이 나왔네

그녀의 이름은 미춰춰마, 힘이 장사인 여신이었지

금빛 물고기 어머니에게서 나온 일곱 신들은 하늘로 땅으로 흩어졌네..."

천신 어마를 비롯하여 수많은 여신들.

여신의 계보에서 남신으로 이어진다.

최초의 여신이 처음으로 만든 신은 '규칙'과 '예절'의 여신들

"신들의 집 한가운데에

위엄에 찬 천신 어마[俄瑪]가 앉아있네

그녀는 최고의 위대한 여신

하늘과 땅의 모든 신들을 낳으셨지

세상의 모든 것들, 어마가 낳아 기르셨네"

(『하니족의 옛 노래[哈尼古歌]』「워궈처니궈窩果策尼果」('옛 노래 열두 가락'이라는 뜻))

(2) 이주의 기억을 신화에 새기는 사람들,『지로경』

○ 영혼의 길 밝혀주는 노래, 『지로경』

이족과 마찬가지로 검은색을 중시하며 자신들의 조상이 머나먼 북쪽의 '노마아메'('노마'는 지명, '아메'는 골짜기라는 뜻)에서부터 이주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사제인 '모피' 혹은 '비모'를 모셔다가 노인의 영혼을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지로경指路經』을 읊어달라고 부탁한다. 길을 인도해주는 모피(비모)의 노래 속에 노인의 영혼은 그들이 살고 있는 윈난성 중부 위앤양에서 멀고먼 북쪽까지, 편안하게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 죽음의 시작에 관한 신화

최초엔 불멸의 존재이던 인간, 언제부터 죽음은 시작된 것일까?

(3) 다랑논 위의 숲에 깃든 '용'

'제룡祭龍'의 습속.

하니족 뿐 아니라 이족, 먀오족 모두에게 있는 제사

제룡, '용'에게 제사지낸다?

제룡의 의미와 신화의 가치